

## 宗教畫에 나타난 天使의 服飾에 관한 研究

金 惠 全

崇田大學校 文理科大學 家政教育科

# A Study on Angels' Costumes in Religious Paintings

Hae Jon Kim

College of Liberal Art and Science, Soong Jon University

### Abstract

This is a study on angels' costumes in religious paintings, especially as this relates to the questions of concepts and theological symbolism.

Angels, as spiritual creatures in Christian thought, play the role of praising God's glory, as messengers of God, the role of guarding Israel and the Church, and protecting or punishing human beings. Sometimes the angels appear in incarnate form. They display no sexual differences and are not able to procreate. The angels' functional classification being thus; nevertheless, they are pictured in various costumes and appearanc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paintings.

The angel Michael appears as a man of dignity when pictured as a guard; the angel Gabriel in the annunciation is often portrayed as a woman of mystical beauty.

Under the Renaissance, the mighty cherubim and seraphim at Yahweh's throne are degraded as plump child-angels, or winged child-heads looking alike Eros or Cupid. They have become playful and all too obviously non-heavenly chruvs, accepted features of the Temple decorations. However, cherubim are often depicted as naked or wrapped around with a piece of cloth and accompanied with wind, which symbolizes the Glory of God.

The angels, costumes without seam are hung over or wrapped around the body, and when sewn they are simple and ample enough that they fall in a great many folds.

However, by the 14C. angels are mostly dressed in costumes common to all Europe, and after that angels gradually appear in folk costumes; for example Italian, Flemish, etc.

Dalmatic, the typical costume of Byzantine often shows up as angels' dresses even after the period. Originally the dalmatic was the Roman tunic to which Eastern influences added. The Roman clavus on the tunic had gradually lost distinction until, by the Imperial epoch, it was worn by the lowest servants. It was proudly therefore, as "The servants of God", that the early Christians are shown wearing the clavus on their wide, ungirdled, sleeved dalmatics.

In addition to their costume, angels have some other distinct characteristics.

First, angels have a halo around their head; this symbolizes their holiness.

Second, angels wear a narrow diadem or a queen's crown that seems to denote their glorious status close to God's throne.

Third, the cloth band across the breast resembles a priest's stole, which suggests the sacred

role of a priest and symbolizes the grace sanctified.

Fourth, lilies in the annunciations are symbols of Mary's virginity, chastity, innocence and heavenly bliss. Angels hold palms or olives in their hands. The former denote prosperity, beauty and the Christians' reward after death; the latter represent peace and amity. the imperial crown made of olives means victory.

Fifth, angels in paintings always have a pair of wings, which can be traced to scripture where cherubim and seraphim are described as having pairs of wings. Angels' wings often have colors of the rainbow, and the rainbow is compared to God's glory.

Sixth, generally artists paint angels' costumes as white, blue, green, gold and purple. Other colors such as red rarely appear. According, to scriptures it is believed that angels should be depicted "as white as snow". According to the biblical expressions of angels as lightning, sun or a pillar of fire, angels should be described as creatures of light. Nevertheless being a form of art, religious paintings may differ in their presentation according to an artist's inspiration and intention.

Since religious paintings illustrated above were almost all done before the Reformation, symbols of colors used in the Catholic Church will also be mentioned.

The white color symbolizes chastity, purity, brightness, delight and divinity. Green represents new birth, eternal life, spiritual revival and the expectance of the grace of God. Blue, the color of sapphires, denotes chastity and truth. Red, the color of rubies, represents divinity, love and religious passion. Violet is the color of dignity, indicating the sovereign, royal or imperial power and the great Sacrifice of Christ.

As mentioned above, angels' costumes were expressed in accordance with contemporary patterns or as indicated in the Bible, and accessories and colors correspond with Christian symbols. Therefore these fact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it comes to the study of costume history.

## I. 서 론

복식사연구는 문헌적인 사료에 의존함이 바람직하고 틀림없는 방법이라 하겠는데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각종 시각적인 자료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각양 각색의, 각종의 재료 및 방법으로 표현된 그림들도 포함되는데 기독교문화가 바탕을 이룬 서양에서는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교화가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자료들이 복식사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종교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체로 성서 중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종교화중에서 천사들이 나타난 그림만을 골라 천사의 복식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천사를 그린 그림은 주로 성모에게 수대고지를 하고 있는 가브리엘을 많이 묘사했으며 그외의 종교화 예물들면 그리스도의 탄생, 육화의 성모자, 그리스도의 磔刑 등의 패턴에서 흔히 나타난다. 천사의 모습 또한 어린아기, 여자, 남자 등으로 다양하며 그 복색 또한 다채롭다. 천사들을 묘사한

작품은 회화, 조각, 벽화, 제단화 등에 다수 나타나며 주후부터 시작되어 비잔틴시대와 르네상스기에 가장 많이 제작되다가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 많은 작품들 속의 천사복식을 전부 논하기는 불가하다. 그러므로 본연구에서는 형태가 비슷한 천사의 복식을 가능한한 생략하고 특징있고 서로 다른 형태의 복식을 입은 천사의 그림만을 선택했으며 대체로 제작된 순서대로 고찰해 나가기로 한다.

그러나 천사는 원래 특수한 종교적인 존재로서 이를 복식사적인 논제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 천사를 그린 그림이 복식사에 응용되고 있는 이상 천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천사들의 복식을 그 구성방법, 부착품, 색채, 소지품 등으로 분석하고 성서적인 상징주의와 결부시켜 논하기로 한다.

연구결과 천사들의 복식이 가지는 특징 즉 시대복을 입고 있는가, 시대복과는 다른 어떤 독특한 형태의 의상을 입고 있는가, 또 어떻게 성서의 상징과 결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가려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연후 천사의 복식을 복식사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 II. 천사의 개념

천사는 히브리어로 ‘말라크’(mal’ak)라하며 헬라어로 ‘앙겔로스’(aggelos)라 하는데 이는 ‘使者’ 또는 ‘使節’을 뜻하며 아라비아어의 l’k는 ‘보낸다’는 뜻이다. 곧 천사는 하나님의 messenger로서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며 개인이나 집단이나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이 된다.

성서에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 거의 300번이나 언급하고 있고 예수의 생애 가운데도 천사가 나타난 일이 몇 번 있다. 천사들 사이에 계급이 있다는 사상이 다니엘서에 처음 나타난다. 여기에는 다만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기록되었을 뿐이지만 外典에는 일곱 천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sup>2)</sup> 또 外典인 에녹서 20장 1-7절에서 “능력의 천사”여섯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Uriel, Raphael, Raguel, Michael, Zariel, Gabriel이고 일곱째 천사로 Ramiel을 넣기도 한다. 그리고 Tobit서 12장15절에는 이런말도 있다.

“나는 라파엘이라. 곧 나는 성도의 기도를 받아올리며 거룩하신자의 영광 앞에 들어가는 일곱 천사 중의 하나로다.”<sup>3)</sup> 그런데 천사의 이름은 그들의 본성을 의미함이 아니고 그 역할을 지칭한 것이다. 또 알레오산의 레이오니오스(가명)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 천사는 여러가지 계급으로 나뉘어져 제 1계급에는 스론(主坐), Cherubim, Seraphim이 있고, 제 2계급에는 힘, 管轄 및 권력이 있으며, 제 3계급에는 주권자, 천사장 및 천사가 있다고 했다. 첫째것이 하나님과 직접 교섭을 하며 둘째것은 인도하고, 둘째것이 셋째것을 인도한다고 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 땅위에 와서 사람을 위해 일한다고 하였다.<sup>4)</sup>

또한 중세 신학자들은 천사들을 대략 아홉계급(Seraphim, Cherubim, Throne, Dominations, Virtues, Powers, Principalities, Archangels, Angels)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모든 천사들의 우두머리 곧 천사장은 Michael이라하는 설과 또는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등으로 보는 설도 있다.<sup>4)</sup>

중세기의 그림 중에는 Michael과 Gabriel을 동등한 위치에 쌍둥이같이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같은 지위를 표현한 곳도 있다. 라파엘은 ‘하나님의 治癒’,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를 뜻하며 미가엘의 임무는



Fig. 1. “St. Michael triumphing over the Devil” Sacramentum Mundi: An Encyclopedia of Theology by Karl Rahner, p.28.

이스라엘과 교회를 수호하고 태초부터 존재한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Fig.1). 또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힘’, 능력 있는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란 뜻이며 성경은 그에 대해 ‘여호와와 사자’, ‘주의 사자’라 언급하고 있다. 그의 직무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자비와 약속을 전하는 일(단 8 : 16, 9 : 21, 눅 1 : 9, 26)을 한다.

다음 스랍은 히브리어로 ‘사랑’이란 뜻이며 스랍에 관한 기사가 이사야 6장 1-6절에 걸쳐 있다. 여기에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 위에 여섯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있는 장엄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며 그들의 임무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찬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있어서 하늘을 이끌며 합당한 예배와 봉사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정결케 한다. 스랍의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우며 “자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그발 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이사야 6 : 2)의 기록에 의거하여 모든 천사들이 날개를 가졌으리란 개념을 갖게 된 것 같다.

다음 그룹들에 관한 기사는 에스겔 10장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즉 그룹들은 “자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겔 10 : 22), “그룹들은 자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Fig. 2.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  
대한기독교서회, 現代聖書辭典, p.931.

얼굴이요, 뱃재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겔 10 : 14) (Fig.2) 그들은 날개와 손 외에 “바퀴안의 바퀴들”로 둘러싸여 “눈들로 가득채워져”있다고 했으며 그룹들은 날개소리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생길 것을 알려준다 (겔 10 : 5). 그룹들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성소에 접근하는 것을 지키는 일을 한다. 그것은 회막에 설치한 속죄소의 한 부분에 금으로 그룹을 만들어 속죄소를 지키도록(출 25 : 18) 설계된 것, 솔로몬의 성전에 그룹을 장식한 사실,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지키도록써”(창 3 : 24) 인간이 에덴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 등으로써 알 수 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그룹은 천사가 아니며 바벨론신화에서 빌려온 신화적인 영물이라고 보고 그들을 여호와가 타고다니는 동물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와같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로운 사업을 수행하도록 능력을 주었다. 곧 천사는 피조물이며 영적인 존재임이 명백하나 특별한 임무를 띠 경우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식 능력도 주지 않았으며 따라서 결혼하는 일도 없다.

천사들의 수는 헤일 수 없이 많은 무리로 묘사되었다. 그들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심하고,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며 현세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도나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고 인간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서 천국에서는 일단 구원받은 인간보다도 하위에 존재하게 된다.

천사들이 모습을 나타낼 때는 대개 매우 영광스럽고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들의 임재를 보는 사람들은 놀라움과 황홀 속에 빠지게 된다. 예수의 무덤에서 돌을 굴러낸 천사는 흰옷을 입고 번갯불처럼 휘황찬란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마 28 : 3).

다니엘과 요한은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록하기를 그들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으며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밝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다고 하였다(단 10 : 6, 계 10 : 1). 그들은 성의 구별

이 없으며 늙지도 병들지도 않고 거룩한 천사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sup>5)</sup> 이상같이 천사의 개념과 자기 이름에 따른 역할을 파악하고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천사의 복식을 분석 고찰하기로 한다.

### Ⅲ. 미술사적 배경

본론에서 다루는 천사의 그림은 6C로부터 17C에 이르는 것들인데 미술사적으로 살펴볼 때, 비잔틴, 고딕 미술을 포함한 중세 기독교미술에 이어 르네상스기까지 걸쳐 있다. 기독교미술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카타콤의 기독교미술에서는 천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발견할 수 없었으나 4C말경부터 후광과 날개가 천사의 외양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들의 모습은 남자들, 젊은이들과 같고 흰색의 튜닉과 pallium을 입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와 로마의 복식이다. 비잔틴 영향하의 종교화로서는 Ravenna의 장엄한 모자이크가 그 좋은 예로서 천사들은 그리스도나 성모의 보좌에 고귀한 날개 달린 수형원으로 표현되었으며 값진 금장복을 차려 입고 있다.

중세미술은 신의 권위를 관념화한 상징주의, 신비주의, 추상적 조형으로 표현했는데 예를들면 의복의 색채, 의복의 수많은 drapery 및 일정한 소지품 등을 말한다. 중세기 끝 그리스도의 휴머니티와 그의 고난을 향한 인간의 신앙심이 절정에 달했을 때 화가들은 천사들을 성스러운 열정의 악기, 그들의 주(Lord)를 애도하는 악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Fig. 3. Cherub MEYER, Handbook or Ornament, p.109.

아기천사나 아기머리에 날개가 달린 예 (Fig.3)는 12세기에 나타나며 점차 인기가 증가하여 르네상스시대에는 고대 이교도의 표상인 에로스나 큐피드의 영향을 받은채 바로크 교회의 彫像과 그림에 즐겨 사용되었다. 여호와와의 보좌에 있는 강력한 Cherubim은 본래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非天上的인 존재로 변모해 버렸다.<sup>6)</sup> 이러한 경향은 르네상스기에 이르러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문화를 부흥시키려는 의도에 편승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1485년 Andrea Mantegna가 그린 「The Madonna of the Cherubim」에 나오는

그들들 역시 Fig.3과 같은 모습이며 구름에 둘러싸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서가 묘사한 그룹의 형상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구름을 동반하므로써 신의 영광스러운 보좌임을 암시한다.

1533년에 Lorenzo Lotto가 그린 「The Madonna and Child with Saints」(The Book of Art. Vol.2. p.245 참조)에도 성모자의 모좌 위를 시종들고 있는 아기천사들이 나오며 벌거벗은 몸에 떠오써 허리와 하체를 가리고 있다. 아기천사들은 이처럼 흔히 벌거벗거나 몸의 일부만을 가린 채 등장하곤 하는데 성모자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아 이들이 그룹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후기 기독교미술에서는 라파엘이 그린 시스틴의 마돈나에서와 같이 그룹을 포동포동하게 살린 어린아기로 표현하기도 했으며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색채는 전통적으로 청색이고 스크램을 둘러싸고 있는 색깔은 언제나 붉은색이었다.<sup>7)</sup>

초기 르네상스기에는 여자천사가 소개되며 오래지 않아 특히 이태리에서 여자천사는 시대복으로 장식되고 경우에 따라서 옷위에 성스러운 기능을 암시하는 stole을 착용한다. 천사들이 옷을 입지 않고 날개없이 나타나는 그림에서는 그들을 인간화하려는 목적과 그림으로써 인간의 사랑과 신앙심을 덜 억제하려는 의도에 따라 그려졌다. 그런데 좀더 가치있는 천사의 초상으로서의 복귀는 20C에 진보되고 있다.

중요화에서 사용되는 색깔은 화가의 자의에 따라서 선택될 수도 있겠으나 천사의 복식은 성직자의 복식과 유사한 점이 많아 카톨릭의 성직자가 사용하는 祭服의 색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색, 은색을 포함한 백색은 빛과 그 광휘를 상징하며 大全, 성스러운, 절대적의 진리와 순결, 신적 등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變容, 復活, 昇天 등 그리스도의 축제를 위한 색인 동시에 성모와 천사의 축제 등을 위한 색이다. 또한 흰색은 봉헌, 즉위식 같은 행사에 착용하며 gold brocade는 백, 적, 녹색의 대응으로 사용한다.<sup>8)</sup> 녹색은 영적인 재생, 싹튼 생명의 색이며 겨울의 죽음음 이긴 생명의 승리, 영원한 생명, 신의 은혜를 향한 희망을 표상한다. 적색은 피, 불꽃 및 주의 실질적인 사랑의 상징 곧 성령을 의미하며 天上의 聖愛와 信仰의 熱情을 상징하고 붉은색 옷은 성령강림제와 그리스도와 사도 및 순교자의 고난을 기념할 때 사용한다. 자색은 권위, 권력, 황제의 색이며 동시에 희생의 어두움과 그리스도의 큰 희생을 기념하며 다시 새롭게함을 의미한다.<sup>9)</sup> 또한 중재와 속죄의 경우에 사용한다. 청색은 사파이어의 빛으로 天上의 眞實과 貞節을 뜻한다. 또 청색,

자색, 홍색은 구약성서 중 대제사장 아론의 祭服 ephod를 구성한 색채로서 기록한 자의 옷으로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 IV. 천사들의 복식

Fig.4는 Ravenna에 있는 Saint·Appollinare in Classe 교회의 apse 바로 바깥쪽 좁은 벽에 서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대천사 가브리엘의 모자이크다. 이것은 6C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가브리엘의 호화스러운 드레스와 그의 금빛과 자주색으로 된 망토, 이것을 고정시킨 어깨의 커다란 보석, 보석들로 번쩍이는 신발이 모두가 성 Vitale교회의 항제 유스티니아누스의 모자이크에 나타난 복장과 닮았다.<sup>10)</sup>

망토와 날개는 모두 자색이며 망토의 양쪽 가슴에 4각형의 금빛 tablion이 있고 그속에 새의 일종인 문양을 둥그라미들이 에워싸고 있다. 이같은 문양은 그리스의 도안이며 tablion은 로마를 거쳐 비잔틴시대 상류



Fig. 4. 천사 Gabriel, MILLARD MEISS, The Great Age of Fresco, p.31.

층의 권위를 표시한 것으로 흔히 보석과 금자수로 꾸민 것이다. 그속에 입은 흰색 달마티카는 어깨에 있는 둥근 roundel, 가슴에 길게 연장된 clavus, clavus 끝에 달린 orbiculus 및 손목 등이 금색으로 장식되었고 허리는 벨트로 느슨하게 매었다. 망또 밑에 보이는 발에는 자색호스와 진주로 장식한 샌들을 신고 있다. 이같은 복식의 형태 및 색채는 비잔틴시대 황제복과 똑같은데 이처럼 가브리엘이 당당한 남자로 표현되고 또 남자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망또 밑의 흰 달마티카는 원래 3세기에 로마의 튜닉에 동방 Dalmatia의 영향을 받아 소매가 달림으로써 유래되었는데 로마튜닉을 장식했던 Clavus는 점차 그 권위를 잃어 로마제국시대에는 가장 천한 종들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카타콤의 미술 중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달마티카에 Clavus를 장식한 채 그려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The Servants of God)으로서의 자격에 긍지를 가졌기 때문이다.<sup>11)</sup>

Fig.5는 이태리 화가 Duccio di Buoninsegna가 1285년에 제작한 「Rucellai의 성모」중 한 천사다. 곱슬머리의 이 여자천사는 머리 주위에 금속성의 가는 테를 쓰고 있다. 연한 녹색의 부드러운 튜닉은 스퀘어네크라인과 팔 상부에 꽤 넓은 금박의 트리밍이 있고 의복에

많은 드레이프가 보인다. 튜닉 위에 걸친 연한 자색 망또 역시 수많은 드레이프가 부드럽게 흐르고 있다. 이 그림에는 이 천사 외에도 다섯 천사가 있으며 그들 복색은 연어색, 북송아색, 청색, 자색 등이 망또와 튜닉에 짝맞추어 나타난다. 이러한 복식은 13C말 14C초에 활약한 Duccio, Giotto, Taddeo Gaddi 등의 그림에 빈번히 나타나는 스타일로서 풍성한 품과 네크라인 및 팔 상부에 있는 금빛 트리밍 등은 비잔틴 시대의 달마티카임을 알 수 있으며 의복의 미묘한 색채, 투명하고 부드러운 옷감, 수없이 드리워지는 drape등이 신비스럽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달마티카는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초기 기독교인의 상징이기도 했으며 본래의 것과는 약간 변형된 형태로 현재까지 카톨릭교회의 副祭의 典禮服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교하여 司祭는 달마티카를 입지 않고 Chasuble과 stole로써 그의 성직을 상징하는데 천사가 달마티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은 副祭와 司敎와의 관계를 시종드는 천사와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Fig.6 역시 이태리 화가 Giotto di Bondone가 1310—1313년에 그린 「영광의 성모」중 한 천사다. 갈색머리의



Fig. 5. Duccio Di Buoninsegna, Madonna of the Rucellai; An Ang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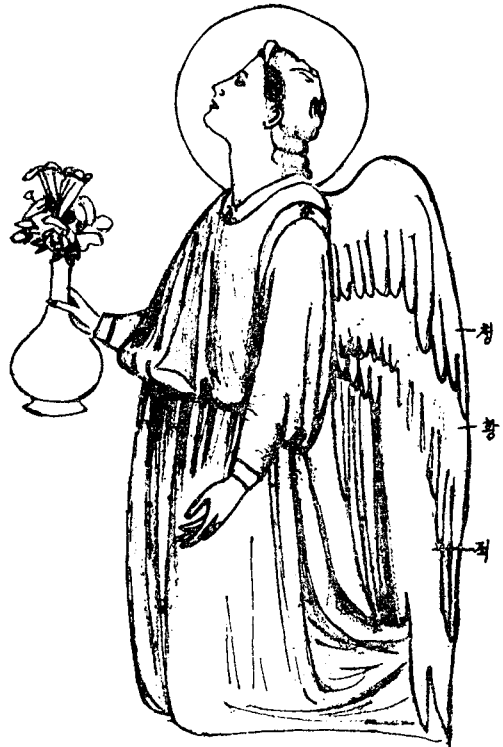


Fig. 6. Giotto Di Bondone, Madonna in Glory: An Angel

이 여자천사는 이마에 적색과 금빛이 빛나는 조흔한 관을 쓰고 그 머리 주변에 후광이 둘러 있다. 튜닉은 담청색으로 라운드넥과, 어깨 및 소매끝에 넓은 금빛 트리밍이 반짝인다. 허리는 풍성히 브라우스되도록 허리띠를 매어 그 밑으로 수많은 fold들이 드리워지게 한 것은 Fig.5의 옷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복의 수많은 주름들로서 종교화의 신비주의에 부합되도록 그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소매는 팔 3/4까지 풍성하게 재단하고 그 여분을 팔꿈치 하부에 모아 바느질했고 그 나머지로부터 손목까지는 꼭 끼게 하여 leg of mutton소매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형식은 그당시 이태리의 복장에 나타난다. 곧 이 스타일은 부분적으로는 달마티카의 흔적을 보이면서 이태리의 시대복을 따르고 있다. 날개는 청, 황, 적색이 두드러지는 무지개색으로 표현했다. 오른손에는 백합을 포함한 여러가지 꽃들이 꽃힌 꽃병을 들고 있는데 백합은 수대고지와 관련이 깊다. 이것은 예수 모친인 마리아의 동정을 상징하며 순결, 결백, 천국복락을 나타내고 부활절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기독교미술에서 사용되는 상징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의미심장한 것의 하나이다.<sup>12)</sup>

Fig.7은 1333년 Simone Martini와 Lippo Memmi가



Fig. 7. 천사 Gabriel, Detail from the Annunciation with Two Saints and Four Prophets

그런 「두 성인과 네 예언자들이 있는 수대고지」중 천사 가브리엘이다. 여자천사로 묘사된 가브리엘은 머리 주위에 후광이 반짝이고 연한 간색머리 깃이 얼굴 주변에 물결치고 있으며 꽤 높은 금관과 더불어 감람나무가지로 만든 관을 쓰고 있다. 또 오른쪽 귀밑머리는 검은 바탕에 금물이 있는 띠로 묶고 있다. 옷은 흰 바탕에 황금빛 작은 무늬가 덮여 있어 얼핏보면 전체를 금빛으로 보이게 하는 관환한 튜닉을 입었는데 중후한 옷감이 꽤 딱딱해 보이며 따라서 드레이프는 전혀 없다. 튜닉의 소매는 튜브모양이고 이 소매 밑으로 좁은 언더슬리브가 내보이며 언더슬리브와 오버슬리브 끝을 각각 금색의 트리밍으로 장식했다. 튜닉 위에 브라운색조인 체크무늬의 망토가 휘날리며 이것을 목에서 잡아매주었다. 금빛과 브라운이 섞인 날개는 금방 내려선 듯 하늘로 치켜 있고 역시 금빛의 넓은 띠가 팔을 감고 가슴에 엇갈리게 드리워 땅에 깔린다. 이는 祭服의 stole을 의미하는 듯하다. 손에도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있는데 구약에 의하면 감람나무로 그룹을 새기고 성전의 그룹을 만들며 內所門을 짜는 등(왕상 6 : 23, 31-33) 구약기자들은 감람나무를 찬양했다(호 14 : 6, 시 52 : 8, 128 : 3, 예 11 : 16). 그런데 올리브 나무가지는 평화와 화친과 치료를 나타내며 이 잎사귀로 만든 면류관은 승리를 뜻한다.<sup>13)</sup> 이 그림에서 화가는 감람나무관과 보석 박힌 crown, 품위있는 옷감, 관환한 구성법, 몸 둘레에 휘감긴 밴드 및 황금색 등으로 천사를 장식함으로써 가브리엘의 신분을 표현하고 있다.

Fig.8은 「聖者에게 인도되어 聖母子 앞에 무릎꿇은 리처드 2세」중 下端 우편에 있는 천사로서 14C의 프랑스 화가의 작품인 듯 하다. 왕실의 의뢰로 그려졌다고 생각되는 영국 리처드 2세의 雙幅畵는 프랑스 혹은 영국의 작품이라고 하며 작품의 연대도 1395, 1413, 1406년 이후, 또는 1413년이란 여러가지 설이 있다. 천사들은 프랑스 목걸이와 영국의 記章을 달고 있다.<sup>14)</sup> 성모자를 비롯하여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열하나의 천사들 의복색은 한결같이 질푸른색이며 단순한 형태로서 dolman sleeve에 허리는 풍성히 blouse되도록 거들을 맨 형식이 Fig.6과 같으며 그 아래 스커트는 많은 fold들로 흐르는 듯 드리워진다. 이같은 스타일은 중세유럽의 복식으로 그시대의 복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그림의 특징은 천사복 및 화폭 전체를 청색으로 통일한 것으로서 청색은 종교화에서 天上의 眞實과 貞節을 상징한다.

Fig.9는 Jan Van Eyck가 1425-30년에 완성한 수대고지다. 이 그림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육중한 브로케



Fig. 8. 聖者에게 인도되어 聖母子앞에 무릎꿇은 리처드 2세 중 下端 古편의 천사 런던國立美術館. p.125.

이드로 보이는 옷감의 가운을 입었는데 튜브모양의 소매, 아래로 플레어되는 품넓은 스커트, 모피트림 등의 구성방법이 성모의 가운과 더불어 북부 Flemish huppelände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운 위에 덧입은 망포의 어깨와 앞가장자리에 보석을 박아넣어 장식한 것은 성모 복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겁고 정교한 것이다. 망포의 붉은색 꽃무늬와 금색의 커다란 무늬가 망포의 장엄함을 한결 돋보이게 해주고 있으며 머리에 쓴 관도 마리아의 것보다 더크고 찬란하다. 이처럼 가브리엘의 복식이 호화롭고 장엄한 것은 하나님의 사절로서 현 세상에서는 인간보다 우위에 있는 천사의 지위를 암시해 주는 것 같다. 날개는 황, 적, 청색이 두드러지는 무지개색으로 호화로운 천사의 복식을 더욱 찬란하게 해준다. 그런데 아름다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계 4:3)하며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같으며”한 것으로 무지개가 하나



Fig. 9. Jan Van Eyck, Annunciation.



Fig. 10. Gabriel, Fra Angelico, Annunciation  
님의 영광에 비유되고 있음을 본다.

Fig.10은 Fra Angelico가 1440—47년에 완성한 수태고지다. 가브리엘은 담자색 라운드네크의 심플하되 풍성한 튜닉을 입고 허리에 느슨히 거름을 매고 있으며 이 튜닉의 앞뒤로는 같은색의 형꼴이 많은 fold들로 드리워져 있다. 또 이 화가가 그린 천사들의 의복색은 자색이 흔하며 고위 성직자들의 전례복에 흔히 자색이 사용된다. 양팔과 가슴에는 황금색의 넓은 트리밍이



반짝인다. 여기에서 장식부분을 제외한 튜닉 자체의 형태는 그 당시 이태리 그림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시대복이라 할 수 있으나 화가는 이 천사의 복식에서 성직자 전례복의 특징 곧 자주색 및 황금색을 응용하여 천사의 성스러운 특성을 살린 듯 하다. 또 활짝 펼친 날개의 색채, 황, 녹, 단황, 청, 황, 녹, 청, 적색 등은 무지개를 상징한 듯 하며 또한 가슴에 있는 금빛의 장식은 “일곱 제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제 15 : 6)에서 典據를 찾을 수 있겠다. 가브리엘의 블론드 머리 위에는 후광이 둘러져 있는데 후광은 신성함을 상징하여 성모자와 천사들 및 성인들의 머리에 둘러 있다.

Fig.11은 Allesso Baldovinetti가 1453년경에 그린 수태고지다. 금발의 곱슬머리를 한 이 여자천사는 관이 없고 머리 위에 후광이 있다. 라운드네크의 청색 언더튜닉이 앞가슴과 양소매에 내어보이며 그 손목은 꼭 끼고 slash가 있어 그 속으로 흰색 셔츠가 내보인다. 청색 튜닉 위에 덧입은 적색 점퍼스커트는 V네크에 거들을 허리에서 꼭 잡아매고 히프에서 다시한번 거들을 하여 히프를 풍성하게 부풀려 주었으며 그림에 수많은



Fig. 11. 천사 Gabriel  
Allesso Baldovinetti, Annunciation

드레이프가 펼쳐진다. 또한 발에는 회색의 호스를 신고 회색의 두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형식 곧 소매끝의 slash, 형겼을 꼬아 만든 허리띠, 더블거들, 두개의 튜닉을 덧입는 방법 등은 이태리 15세기의 그림에 흔히 나타난다. 즉 플로렌스 화가 Andrea del Castagno가 1448년에 그린 「Cumaeen Sibyl」과 1450년의 작품인 「The Youthful David」에도 더블튜닉과 더블거들의 형식이 잘 묘사되어 있다(The Great Age of Fresco p.149 참조). 이러한 더블거들과 더블튜닉의 착용방법의 기원은 각각 고대 희랍의 도리아식 chiton에서 찾을 수 있으나 15C 이태리의 그림에는 위에서 든 예 외에도 더블거들의 형식이 여러곳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천사복이 그 시대 복장임을 알 수 있다.

Fig.12는 1585년경에 Ludovico Carracci가 그린 수태고지다. 가브리엘은 관찰한 흰색의 튜닉을 입고 있으며 그 형태는 초기의 달마티카와 닮았으나 clavus도 없고 다른 장식도 전혀 없는 소박한 것이다. 그 위에 선홍색의 리본을 가슴에 교차되도록 착용하고 있는데 이 그림 외에도 천사들의 복식에서 이같은 형겼밴드를 휘감고 있는 모습이 빈번히 나타난다. 특히 이 그림의 리본은 그 착용방법과 그 끝에 십자가가 있는 형식이 고위 성직자들의 stole(領帶)과 닮았다. stole은 원래 길고 좁은 형겼으로 언제나 실크로 만들며 세계의 십



Fig. 12. 천사 Gabriel  
Ludovico Carracci, The Annunciation

자가로 장식(양끝과 중앙)하는데 가장자리에 수술을 달기도 한다. 그 착용방법은 副祭, 司祭, 主教에 따라 다르며 6C에 동방교회에서 확립되어 副祭를 위한 옷으로 제정되었다하나 원칙적으로 司祭 이상의 성직자들이 착용하는 것이고 우선 착용방법이 다르다. 즉 副祭는 흰옷을 입고 fold된 stole을 왼쪽어깨에 걸치게 되어 있다.<sup>15)</sup> 그러나 司祭의 경우 상대에는 가슴에 교차되게 사용했으며 근래에 와서는 수직으로 착용하기도 한다. stole은 司祭의 권위와 제사장으로서의 신성한 직분을 상징하므로 결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천사가 stole을 司祭와 같은 방법으로 착용하는 것은 교리상 어긋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천사의 복색은 이 그림에서와 같이 흰색으로 많이 묘사되는데 성경에 천사의 옷을 눈같이 희다고(마 28 : 3)하였다. 그런데 흰색의 상징은 순결, 빛, 환희, 신격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Fig.13은 Orazio Gentileschi가 1620년경에 제작한 「순교자 성세실리아, 성발레리아누스와 성티부르티우스」 중의 천사다. 세사람의 위를 날고 있는 성인 남자 천사는 맨몸에 넓은 흰색의 형장으로 허리를 잡아매 주었고 등에는 두날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의 왼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데 종려는 빈영과(시 92 : 12), 아름다움(아 7 : 7-8)을 상징하며 야자수 모양은 성전과(왕상 6)회당을 장식하기도 하여 거룩한 나무로 다루어진다. 그의 오른손에는 화관을 들고 있는데 본 논문 Fig.7의 천사도 화관을 쓰고 있으며 1487년 Botticelli가 그린 「석류의 성모」에 나타난 천사



Fig. 13. 천사 Orazio Gentileschi, 순교자 성세실리아, 성발레리아누스와 성티부르티우스 중에서

들의 허리에도 장미꽃 화환이 둘러 있는 등 천사들의 그림에 화환이 자주 나타난다. 장미꽃은 메시아의 약속을 상징한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같이 피어나리라”고 했다. 장미꽃은 13세기경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다.<sup>16)</sup>

#### IV. 결 론

본 연구는 천사의 복식을 각 천사들의 개념 및 종교적인 상징주의에 결부시켜 분석 정리한 것이다.

천사들은 기독교사상에서 영적인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인간을 보호하며 벌을 주는 등 각기 맡은 바 임무가 다르다. 그들은 간혹 육신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는데 성의 구별은 없고 따라서 결혼도 생식능력도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및 교회의 수호자이며 사탄과 싸우는 직분을 가진 미가엘은 당당하고 무서운 남자의 모습을 띠고 복식도 남자것을 입고 있다. 수태고지에 나오는 천사 가브리엘은 흔히 여성으로 표현되며 이 때는 부드러운 여자복식을 착용하는데 Fig.4에서와 같이 미가엘과 같은 직분 곧 수호자로서 묘사될 때는 남자로 표현되기도 한다. 기타의 종교화에 드물게 성인 남자로도 묘사된다. (Fig.13) 하나님과 성모자의 보좌에는 그룹들 즉 포동포동한 어린아기의 모습이거나 아기의 머리에 날개만 달린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성경에 묘사된 형상과는 전혀 다르며 르네상스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천사들의 의복은 바느질하지 않은 형질을 그져 걸쳐 두르는 식(아기천사 ; cherub, Fig.12)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예수의 속옷에 관하여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한 것으로 보아 거룩한 자의 의복은 바늘과 가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천사의 옷은 또는 심플하게 재단되고 대체로 관활한 스타일로서 몸 주변에 수많은 drapery로 부드럽게 휘감기는데 이는 천사들의 소지품 및 의복의 색채와 함께 관념화된 신의 권위 즉 신비주의의 표현방법이라 하겠다. 착용방법은 튜닉만으로, 튜닉과 망토를 함께, 혹은 더블튜닉을 입은 채로 묘사된다. 그러나 대체로 천사의 복식은 그 시대의 상을 입혀 표현했다(Fig.4-11). 본론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개 14C까지는 천사복이 전유럽에 공통되는 시대복을 입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민속복의 특징이 각각 두드러져 이태리식(Fig.6, 10, 11), 프랑드르식(Fig.9)이 나타난다. 또한 비잔틴의 대표적인 의상인 달마티카(Fig.2, 3)가 빈번히 나타나는데 비잔틴시대 이후에도 천사의 복식에 달마티카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Fig.12) 달마티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즉 달마티카를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종됨을 상징한다는 것과 관련시켜 생각할 수 있겠다. 천사가 아기로 묘사될 때

는 벌거벗거나 혹은 단순한 형질조각을 두르기도 하며 특히 그룹(cherub)으로 묘사될 때는 아기머리에 날개가 달린 형태로서 흔히 구름을 동반하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의복 외에 천사를 묘사한 그림에는 몇가지 특수한 부속품이 따른다.

첫째 천사들의 머리 위에 후광이 있는데 이는 신성함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모든 거룩한 자의 머리 위에 나타난다.

둘째, 천사들 머리에는 금속의 가는 테를 두르기도 하고 의복이 여왕같이 호화로운 경우에는 거기에 어울리도록 장엄한 왕관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는 천사들의 지위를 표현한 것 같다. 또는 머리에 장미 화관을 쓰기도 하는데 장미는 메시아의 약속을 상징한다.

셋째, 천사들의 가슴에 드리운 형질밴드는 사제의 stole과 같으며 stole은 신성한 은혜와 聖職 즉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므로 천사에게 stole을 착용시킴은 부적당한 것이다. (Fig. 5, 11)

넷째, 수태고지를 묘사한 그림에 흔히 백함을 그리는데 이는 마리아의 동경을 상징하며 이외에 순결, 결백, 천국복락을 나타내기도 한다. 천사들의 손에는 백함 외에도 종려나무 또는 감람나무가 들려있는데 종려나무는 번영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사후에 받을 기독교인의 보상을 상징하며 감람나무는 평화와 화친을, 이 잎사귀로 만든 면류관은 승리를 뜻한다.

다섯째, 천사는 반드시 한쌍의 날개를 달고 있는데 이는 성경에 스랍과 그룹이 여러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기록에 의한 것 같다. 천사들 날개는 흔히 무지개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무지개는 천사의 머리위에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영광에 비유된다.

여섯째, 천사들의 복색으로 흰색, 청색조, 녹색조, 황금색, 담자색 등이 나타나고 간혹 홍색이나 기타 색 같이 드물게 나타난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천사의 모습은 “눈같이 희고 광채가 나며 찬란한 옷”으로 표현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또한 천사의 모습을 번개, 태양, 불기둥 등으로 묘사한 사실에 의존한다면 금물을 혼합하여 광채 있게 표현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거나 종교화는 하나의 예술이므로 화가의 의도에 따라, 또는 그의 영감에 의해서 달리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교화는 주로 종교개혁이전의 것이 대부분이므로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색채의 상징을 들여보기도 한다.

흰색의 상징은 순결, 빛, 환희, 신격을 포함(금빛도 포함)하며 초록색은 신의 은혜를 향한 희망과 싹튼 생명, 영원한 생명을 표상하며 청색은 사파이어의 빛으로 天上의 眞實과 貞節을 뜻하며, 홍색은 루비 광채로서 天上의 聖愛와 신앙적 熱貞을 상징한다. 자색은 권위와 황제의 색이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회개 명상, 하나님과 그의 왕국에 대한 동경을 상징한다. 이상과 같이 천사의 복색은 대체로 그시대의 복색으로 표현했으며 혹은 성서가 묘사한대로, 흰색과 금빛을 사용하거나(Fig. 7, 12), 바느질 흔적이 없도록(Fig. 1, 12, 13)했으며 부속품이나 색채에 있어서는 특히 기독교의 신비주의 및 상징주의에 부합되도록 표현한 사실을 참작하여 이를 복색사 연구에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引用文獻

1. 金春培 편집, 基督教大辭典, 大韓基督教書會, 842, 단기 4293.
2. 헨리디이슨 저, 권혁봉역, 組織神學講論, 생명의 말씀사, 1975.
3. 金春培, 전계서 843—844.
4. J.J. von Allmen, Vocabulary of the Bible,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354, 1966.
5. 빌리그레이엄 저, 都漢鎬譯, 天使: 하나님의 秘密을 맡은 자, 浸禮會出版社, 46, 1977.
6. William Benton, Encyclopedia Britanica, Chicago-London 923.
7. William Bridgewater and Seymour Kurtz edit., The Columbia Encyclopedia, Columbia Univ. Press, 395, 1963.
8. Mil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crown publishers, INC. New York, 94, 1972.
9. L'ART SACRÉ, 18, 1963.
10. Millard Meiss, The Great Age of Fresco, George Braziller, Inc. New York, 30, 1970.
11. Millia Davenport, 전계서, 75.
12. 김동수 역편, 基督敎의 象徴, 대한기독교서회, 83—85, 1964.
13. 상계서. 88.
14. 探求堂, 正韓出版社, 劉俊相外 2人譯, 런던國立美術館. Vol. 12, 125.
15. Millia Davenport, 98.
16. 김동수, 전계서. 80.